

# 일본, 화학물질 위험평가 1년 연장

평가결과의 정밀도·신뢰성 확보 위해 ... 2004-05년 평가물질수 감축

일본이 화학물질 위험평가 프로젝트 일정을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기구(NEDO)는 [화학물질의 위험평가 및 위험 평가방법 개발] 프로젝트 기본계획의 전체일정을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화학물질 배출과약 관리촉진법(PRTR법) 대상물질(435물질) 중 생산 및 수입량이 많은 물질(약 180물질)에 대해 유해성 정보, 위해정보 등을 정비해 초기위험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위험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5개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진척상황으로 보아 평가의 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연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03년 3월 정식으로 결정한다.

2001년 시작한 위험평가 프로젝트에서는 2001년 16물질의 평가를 끝냈고 2002년에는 30물질의 초기위험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2003년 54물질, 2004년 및 2005년 각각 40물질을 평가하는 스케줄이 설정돼 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각 년도마다 평가물질 수를 줄이기 위해 전체계획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2003년 38물질, 그후 3년간 매년 32물질씩 재배분할 예정이다.

위험평가 프로젝트는 기술개발과 함께 지리적 기반이라는 요소가 강해 평가성과는 Risk 매니지먼트, Risk 커뮤니케이션에 유효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만큼 정밀도가 높고 신뢰성 있는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유해성 정보나 위해정보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었던 물질의 위험평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작업진도와 함께 물질마다 유해성이나 위해 특징이 크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 당초의 예상 이상으로 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의 물질마다 실시한 초기위험 평가서의 원안 작성, 위탁선 내부에 따른 리뷰 및 외부리뷰라는 단계별 작성에 예상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물질에 따라서는 리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유해정보를 지금까지 검토한 물질만큼 충분한 내용을 얻을 수 없는 것도 상정돼 있어 조사범위를 넓혀 데이터를 취득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 단계에서는 2003년 예정돼 있는 54물질에 대해서는 평가정밀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실시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초기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할 물질수는 PRTR법 대상 435물질 중 생산·수입량이 많은 180물질로 대상물질 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NEDO는 초기위험 평가에 따른 연도별 평가물질 수를 감축하고 전체계획을 1년 연장함으로써 이제까지와 같은 정도의 정밀도,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획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2/04/25>